

#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kykim@kiep.go.kr, 044-414-1257)

**이호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044-414-1057)



## 차 례

1. 농산물 수출 제한 현황 및 주요 배경
2. 농산물 수출 제한 영향
3.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인도정부는 2023년 7월 20일, 인도 전체 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비(非)바스마티 백미(non Basmati white rice) 수출을 금지하고, 8월 19일에는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품목도 확대하고 있음.
  - 인도는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파쇄미(broken rice), 설탕, 밀, 밀가루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쌀과 양파에 대해 추가적인 농산물 제한조치를 결정한 것임.
- ▶ 인도정부의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는 자국 내 물가 및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이상기후로 공급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인도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인도의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개월 만에 최고치인 7.4%를 기록함.
- ▶ 이번 인도의 쌀 수출 금지조치는 지난해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는 2017~21년 평균 1억 8,00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그중 59%를 수출했고, 밀의 경우 같은 기간 1억 300만 톤을 생산하고 그중 8%를 수출함.
  - 엘니뇨 영향으로 작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국제 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의 쌀 수출 제한까지 더해져, 7월 FAO 국제 쌀 가격지수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인도의 비(非)바스마티 백미는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네팔과 같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베냉,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와 같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인도산 쌀 수입 비중이 높아 해당 국가의 식량안보 위협을 확대하고 있음.
- ▶ 인도의 수출 제한조치는 하반기에 새로운 수확물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2024년 총선을 앞둔 모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 한편 인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품종 개발, 농업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임.
- ▶ 한국은 인도의 농업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다수확 작물 개발 △관개시설 인프라 확충 △농업인력 훈련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인도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 1. 농산물 수출 제한 현황 및 주요 배경

## 가. 농산물 수출 제한 현황

- 2023년 7월 20일 인도정부는 인도 전체 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비(非)바스마티 백미(non-Basmati white rice)<sup>1)</sup>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며,<sup>2)</sup> 8월 19일에는 양파에 수출 관세를 40% 부과하겠다고 발표함.<sup>3)</sup>
  - 인도정부는 2022년 9월부터 비(非)바스마티 백미에 2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출을 금지함.

표 1. 2023년 8월 기준 인도의 식품 수출 규제 현황

규제품목	규제 수준	규제 개시일	인도 전체 식품 수출 대비 비중	전 세계 공급 대비 수출 비중	HS코드 (4단위)
밀	수출 금지	2022.5.13	0.21%	0.15%	1001
설탕		2022.6.1	4.43%	4.36%	1701
밀가루 (semolina, maida)		2022.8.25	0.33%	2.17%	1101
파쇄미(Broken Rice)		2022.9.8	24.33%	30.32%	1006
비(非)바스마티 백미		2023.7.20	24.33%	30.32%	1006
쌀(현미, 백미)	수출 관세	2022.9.9	24.33%	3.32%	1006
양파		2023.8.19	1.72%	8.88%	0703
밀가루	수출 허가제	2022.7.12	0.33%	2.17%	1101

주: 수출 비중은 달러 기준임. 설탕의 규제 종료일은 2023년 10월 31일이며, 그 외 모든 품목은 12월 31일까지임.

수출 비중은 세부 품종이 아닌 대표 품종을 기준한 것으로 IFPRI 발표 값을 반영하였음.

자료: 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검색일:2023. 8. 28).

- 2023년 8월 기준 인도는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규제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음.<sup>4)</sup>
  - 인도정부는 2022년 5월 밀(wheat) 수출 금지에 이어 6월에는 설탕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8월부터는 밀가루 중 강력분(semolina)과 중력분(maida)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
  - 같은 해 9월에는 사료용 쌀을 확보하고 에탄올 생산을 늘리기 위해 파쇄미 수출을 금지했음.
    - 인도정부는 2020년 곡물 기반의 에탄올 생산을 허용하는 에탄올 혼합정책(EBP)을 발표함.<sup>5)</sup>

1) 인도가 수출하는 쌀은 크게 바스마티와 비(非)바스마티로 구분할 수 있음. 바스마티는 길고 홀쭉한 낱알 모양의 쌀로 독특한 향을 가진 고품질 종을 의미하며, 비(非)바스마티는 바스마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쌀로 모양과 색이 다양하고 바스마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Rice of India www.riceofindia.com(2018. 2. 9, 검색일: 2023. 8. 25).

2) 인도정부 온라인 보도자료(2023. 7. 20), "Centre amends Export Policy of Non Basmati White Rice to ensure adequate domestic availability at reasonable prices"(검색일: 2023. 8. 25).

3) All India Radio(2023. 8. 19), "Centre imposes 40 percent export duty on Onions to improve its domestic availability."

4) 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국가별 현황(검색일: 2023. 8. 28)을 참고하여 작성.

5) 인도 석유 및 천연가스부(2020. 10. 27), "Supply of surplus rice with Fel for the production of ethanol"(검색일: 2023. 8. 25).

- 인도의 농산물 수출 제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제 식량안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2021년 기준 인도의 쌀 수출은 192억 972만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양파 수출은 4억 4,945만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하였음.<sup>6)</sup>

## 나. 농산물 수출 제한의 주요 배경

- 최근 인도가 농산물 수출 제한을 확대한 배경은 이상기온에 따라 농산물 생산이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수급에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임.
  - 곡류와 채소류를 많이 생산하는 인도 북서부를 중심으로 이른 더위 및 폭염이 발생하였으며, 몬순(Monsoon) 기간에 비가 불규칙하게 내리면서 라비(Rabi)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 및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함.<sup>7)8)</sup>
  - 2023년 2월(겨울 시즌) 인도의 기온은 1901년 이후 가장 따뜻한 29.5C를 기록하였으며, 5월 이후 인도 북서부 지역인 편자브,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를 중심으로 45도 이상의 폭염이 시작되어 6월에는 자르칸드, 오디샤 등 중동부 지역으로 확대되었음.<sup>9)</sup>
  - 일반적으로 6월에 시작하는 몬순 장마가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양파의 주생산지인 마하라슈트라에는 평년 대비 23% 적은 양의 비가 내렸고, 쌀과 밀의 주요 생산지인 편자브의 경우에는 평년 이상(91%)의 강우량이 관측됨.
  - 다른 주요 쌀 생산지인 오디샤, 텔랑가나, 케랄라, 인도 북동부 4개 주(나갈랜드, 마니푸르, 미조람, 트리푸라)에는 평년보다 각각 26%, 31%, 32%, 33% 적은 비가 내렸음.<sup>10)</sup>
- 2023년 7월 인도 소비자물가(CPI)상승률은 식료품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15개월 내 최고치인 7.4%를 기록함.
  - 인도 소비자물가 바스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46%)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0.6%를 기록하였으며, 식료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곡류는 13%, 채소류는 37.3% 상승하였음.
    - 쌀과 밀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3%, 11.9% 오름.
    - 채소류 중에서는 토마토의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01.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외 생강, 고추, 양파의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177.1%, 50.4%, 11.2% 인상되었음.

6) 쌀은 쌀 및 그 상품, 양파는 Onions and shallots, dry(excluding dehydrated) 기준임. FAO 통계(검색일: 2023. 8. 23).

7) 인도의 농작물은 초겨울에 파종해 4~5월에 수확하는 라비(Rabi) 작물과 여름에 파종해 9~11월에 수확하는 카리프(Kharif) 작물로 구분함. 라비 작물에는 밀, 보리 등이 있으며, 카리프 작물에는 쌀, 옥수수, 목화 등이 있음. 쌀은 라비 및 카리프 작물 모두에 해당하나 겨울철 수확량이 전체 수확량의 약 70%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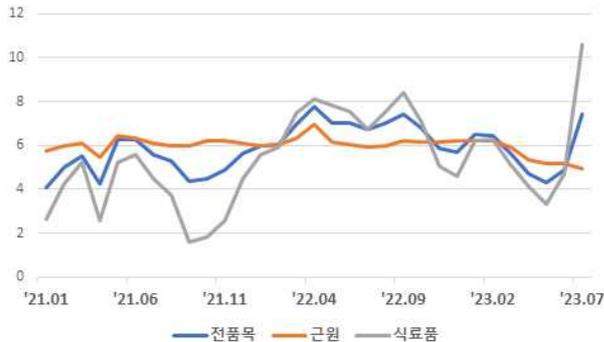
8) 몬순은 인도 6~9월 기간의 장마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 내리는 비가 인도 전체 강우량의 약 80%를 차지함. 천수 농업 비중이 높은 인도는 몬순이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인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9) 인도 기상청(IMD)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함. [https://internal.imd.gov.in/pages/press\\_release\\_mausam.php](https://internal.imd.gov.in/pages/press_release_mausam.php)(검색일: 2023. 8. 26). 2023년 6월 기준 온열질환으로 1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Al Jazeera(2023. 6. 19), "‘Carried 26 bodies’: More deaths in north India amid extreme heat"(검색일: 2023. 8. 25).

10) ICRIER(2023), Climate-Proofing Agriculture, p. 15(검색일: 2023. 8. 25).

그림 1. 인도 전 품목 및 식료품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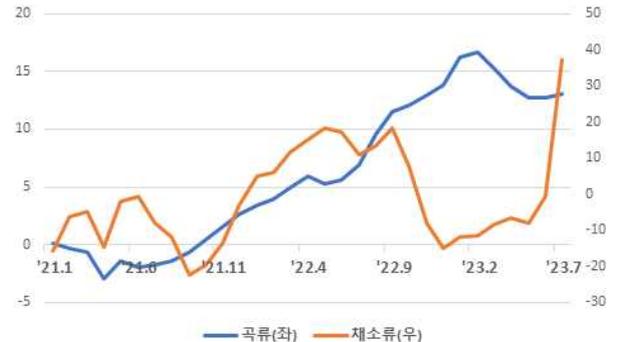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 CMIE(검색일: 2023. 8. 24).

그림 2. 곡류 및 채소류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 CMIE(검색일: 2023. 8. 24).

■ 2024년 4~5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모디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도정부는 국내 주요 식품의 가격을 낮추고 농산물 수급을 안정화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2023년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에 “내년도 독립기념일에 붉은 성에서 인도의 성과를 발표하겠다(I will give an account of country’s achievements on next August 15 from Red fort)”라고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임.<sup>11)</sup>
- 2014년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배경인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의식해 모디 정부는 정부 주도의 자본 지출을 대폭 늘려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sup>12)</sup> 생필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음.
  - 2012/13, 2013/14년 인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1%, 9.9%로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화 범주(4±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은 2년 연속 11% 이상을 기록한 바 있음.
- 소비자물가 상승은 인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축소로 이어져 2023/24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인도의 민간소비 바스켓에서 채소류는 19.5%, 곡류는 15.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sup>13)</sup>
- 2023/24년 인도 GDP 성장률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감소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위축되고 있음.<sup>14)</sup>
  - 2023년 8월 기준 인도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6.5%로 회복되었으며, 인도의 2022/23년 4/4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7%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11) PM INDIA, PM’s address from the ramparts of Red Fort on the occasion of 77th Independence Day(검색일: 2023.8.25.)

12) 2014년 총선은 인도 독립 운동의 핵심 인물이자 초대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 가문이 이끄는 인도국민회의당(INC)이 낮은 카스트 출신의 모디 총리 및 힌두 근본주의 정당인 BJP에 패하며 10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

13) 인도 통계 및 프로그램부, <https://www.mospi.gov.in/134-private-final-consumption-expenditure>(검색일: 2023. 8. 24).

14) 2023/24년 인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S&P 6%, IMF 6.1%, ADB 및 인도 중앙은행 6.5%임(2023년 8월 기준).

그림 3. 인도의 분기별 민간소비 성장률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3. 8. 24).

그림 4. 인도 기준 금리

(단위: %)



자료: CMIE(검색일: 2023. 8. 24).

## 2. 농산물 수출 제한 영향

### 가. 국내 영향

■ 곡류의 소매가격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채소류의 소매가격지수는 8월 초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8월 30일 곡류 소매가격지수가 7월과 8월 내 최고치인 190.12p를 기록했고, 가격지수 변동 폭도 7월(3.7)보다 8월(4.2)에 더 컸었음.
- 채소 가격지수는 8월 초 322p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정부의 쌀 수출 제한조치가 인도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채소류 소매가격지수가 하락한 것은 양파 수출 제한조치의 영향보다는 토마토 가격 안정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sup>15)</sup>

그림 5. 인도 곡류 소매가격지수(7~8월)



주: 2012=100.  
자료: CEDA(검색일: 2023. 9. 4).

그림 6. 인도 채소류 소매가격지수(7~8월)



주: 2012=100.  
자료:CEDA(검색일: 2023. 9. 4).

15) 토마토는 수출 제한 품목은 아니지만 최근 채소류 중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해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음.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39908>(검색일: 2023. 8. 31).

■ 인도정부의 갑작스러운 쌀 수출 제한조치로 쌀 수출업계에 혼란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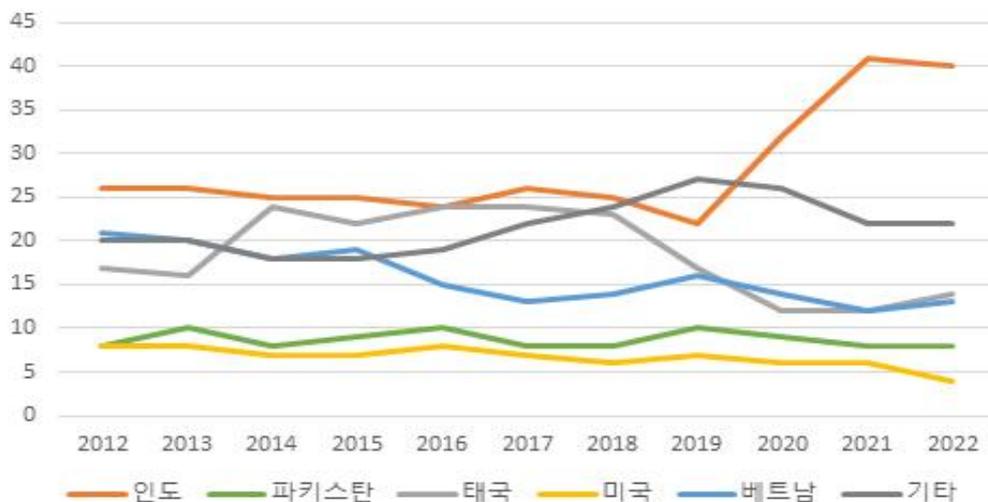
- 수출용 비(非)바스마티 쌀이 항구에 갇혀 물류업계 및 수출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8월 29일 인도정부는 수출 금지조치가 발효되기 전 관세 납부가 완료된 쌀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였음.<sup>16)</sup>
- 인도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소매업자, 수출업자, 가공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격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sup>17)</sup>

나. 국외 영향

■ 인도는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인도의 쌀 수출 금지조치는 국제 쌀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주요 수입국의 식량안보 위험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인도 쌀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네팔, 방글라데시와 같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쌀 수출의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sup>18)</sup>
- 바스마티 쌀 수출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및 캐나다 등 바스마티 쌀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에서 인도산 쌀을 사재기하는 현상도 발생하였음.<sup>19)</sup>

그림 7. 세계 주요 쌀 수출국 및 수출 비중  
(단위: %)



자료: FAO 통계(검색일: 2023. 8. 24).

16) Reuters(2023. 8. 30), "India allows exports of non-basmati white rice trapped at ports"(검색일: 2023. 9. 4).

17) 8~9월은 라비 작물 수확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소매업자 및 수출업자가 쌀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WIRE(2023. 8. 19), "What the Rice Export Ban by India Has Achieved"(검색일: 2023. 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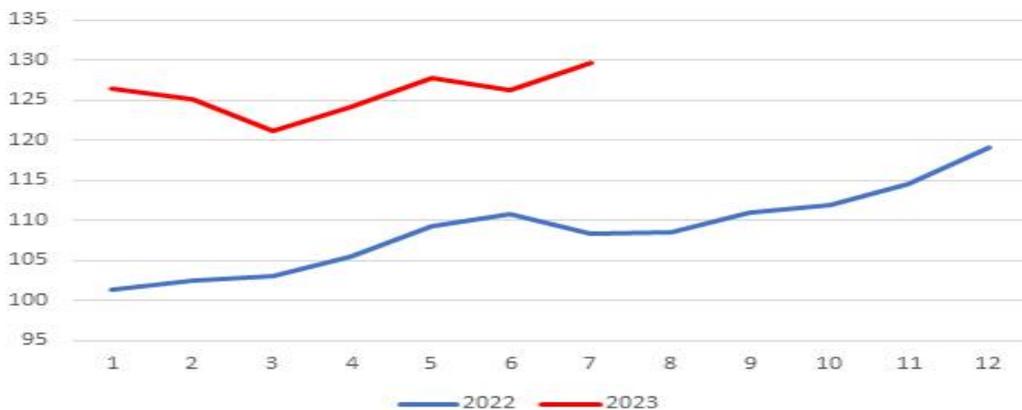
18) 김도연(2022),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p.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 CNBC(2023. 7. 26), "India's rice export ban leads to stockpiling in Canada and around the world"(검색일: 2023. 8. 25).

■ 주요 쌀 생산 국가의 국내 수요 증가와 인도 쌀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져 7월 FAO 국제 쌀 가격지수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sup>20)</sup>

- 2023년 7월 곡물 가격지수는 6월의 126.6p보다 0.7% 하락한 125.9p를 기록했으나, 쌀 가격지수는 129.7p로 6월 대비 2.8% 상승하였음.
- FAO는 아시아 시장의 인디카(Indica) 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 엘니뇨로 인한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격 상승을 견인했고,<sup>21)</sup> 인도가 비(非)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지한 것이 공급에 대한 불안을 확대해 국제 쌀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함.

그림 8. 국제 쌀 가격지수



주: 2014=100.  
자료: FAO(검색일: 2023. 8. 24).

■ 2018/19~2023/24년 기준 인도 비(非)바스마티 백미 총수출 중 18%는 주변국인 네팔로 수출되었으며, 2022/23년을 기준으로 베냉,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이 확대되었음.

- 2022년 세계은행의 국가별 GDP 순위에 따르면 케냐 67위, 코트디부아르 82위, 네팔 99위, 모잠비크 124위, 베냉 126위, 토고 154위로, 인도의 비(非)바스마티 백미 수출 주요 국가 중에는 개발도상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sup>22)</sup>
- 인도는 스리랑카, 싱가포르, 탄자니아, 콩고, 동티모르, 미국, 오만, 예멘, 파푸아 뉴기니, 중국 등에도 비(非)바스마티 백미를 수출하고 있음.
- 중국은 2018년 9월부터 인도 비(非)바스마티 쌀을 수입해왔으며, 2022년 기준 인도에서 가장 많은 쌀을 수입하고 있음.<sup>23)24)</sup>

20) FAO RICE PRICE UPDATE(2023. 8. 4), <https://www.fao.org/markets-and-trade/commodities/rice/fao-rice-price-update/en/> (검색일: 2023. 8. 30).

21) 인디카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자포니카와 다른 장립 형 쌀로, 인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에서 많이 재배되어 '인남미'라고 하며, 전 세계 교역의 약 90%를 차지함. 비(非)바스마티 백미도 인디카에 속함. 국민일보(2012. 6. 5), 「한마당-김상원 쌀의 변화」, <https://news.kmbi.co.kr/article/view.asp?arcid=0006129003>(검색일: 2023. 8. 25).

22) WB(2023), "GDP 2022," [https://databankfiles.worldbank.org/public/ddpext\\_download/GDP.pdf](https://databankfiles.worldbank.org/public/ddpext_download/GDP.pdf)(검색일: 2023. 8. 25).

23) World's Top Export, <https://www.worldstopexports.com/chinas-rice-imports-by-country/>(검색일: 2023. 8. 30).

24) 중국정부는 인도로부터 주로 사료용 쌀을 수입하기 때문에 인도의 쌀 수출 제한조치로 인한 자국의 식량안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함.第一财经(2023. 8. 8), 「国际米价涨至12年新高, 国内米价影响如何? A股公司多措并举避险」(검색일: 2023. 8. 29).

- 주요 쌀 생산국인 베트남도 2021/22년과 2023년 4~6월 기준 인도 비(非)바스마티 백미의 상위 수입국으로 집계됨.
- 베트남은 2021/22년에 쌀 생산량이 감소하여 인도에서 쌀을 수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로부터 쌀을 수입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인도 비(非)바스마티 백미(HS-1006.30.90) 주요 수출국 및 비중

순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년 4~6월	
1	네팔	19%	네팔	26%	네팔	14%	네팔	13%	베냉	8%	케냐	22%
2	방글라 데시	14%	말레이 시아	4%	말레이 시아	9%	마다카 스카르	9%	케냐	8%	모잠 비크	8%
3	UAE	10%	마다카 스카르	0%	마다카 스카르	7%	베냉	8%	마다카 스카르	8%	베트남	8%
4	인도 네시아	7%	UAE	14%	UAE	6%	베트남	6%	카메룬	6%	토고	6%
5	사우디 아라비아	6%	베냉	2%	베냉	6%	말레이 시아	6%	코트디부 아르	6%	이집트	6%
6	카타르	4%	사우디아 라비아	7%	사우디아 라비아	5%	카메룬	5%	UAE	5%	코트디 부아르	4%
7	기니	4%	토고	2%	토고	4%	UAE	4%	모잠비크	5%	카메룬	4%
8	이집트	3%	이라크	4%	이라크	4%	토고	4%	베트남	5%	UAE	4%
9	마다카 스카르	3%	기니	3%	기니	4%	모잠 비크	4%	앙골라	5%	마다카 스카르	4%
10	예멘	3%	케냐	0%	케냐	3%	코트디 부아르	4%	네팔	4%	세네갈	3%

주: 비중은 수입국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인도 전체 비바스마티 백미의 수출액임.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3. 8. 24).

■ 2021년 기준 네팔, 베냉, 코트디부아르, 케냐, 모잠비크의 전체 쌀 수입에서 인도산 쌀의 비중은 평균 58%로 높은 편이며,<sup>25)</sup> 인도의 쌀 수출 제한조치가 이 지역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인도의 수출 금지조치가 발표된 이후 네팔의 비(非)바스마티 쌀 가격이 1포대(25kg)당 최대 250루피까지 인상되었으며, 다른 품종 쌀 가격도 킬로당 평균 25루피 올랐음.<sup>26)27)</sup>
- 네팔 정부는 인도에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쌀 금지조치를 면제해달라고 인도정부에 공식 요청함.
- 2021년 인도의 비(非)바스마티 쌀 주요 수출국인 아프리카 4개국의 쌀 수입 의존도<sup>28)</sup>는 평균 80%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모잠비크의 경우는 9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의 비(非)바스마티 쌀 가격은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보다 저렴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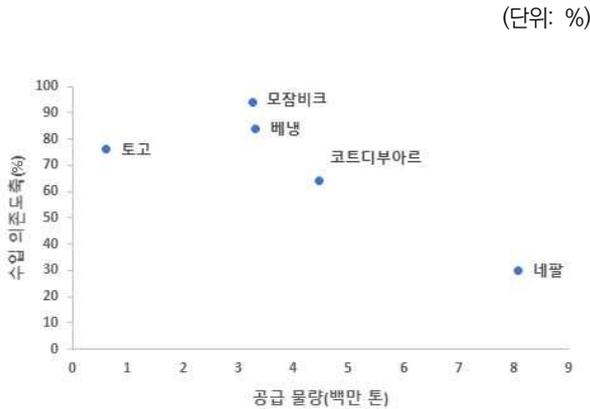
25) FAO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검색일: 2023. 8. 25).

26) 2021/22년 기준 네팔은 인도로부터 140만 톤의 쌀을 수입했으며, 그중 138만 톤이 비(非)바스마티 쌀임.

27) Kathmandu Post(2023. 8. 11), "Nepal sends tomatoes to India, and asks for rice"; Nepal live TODAY(2023. 8. 8), "India bans rice exports, Nepali consumers feel the impact"(검색일: 2023. 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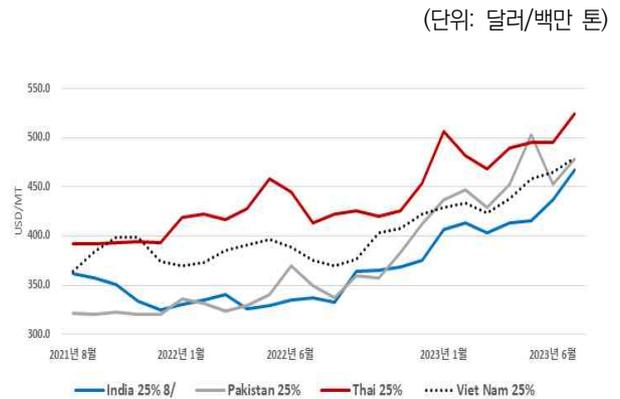
28) 수입 의존도=수입/공급물량(생산량+비축량+수입-수출).

그림 9. 네팔 및 아프리카 4개국의 쌀 수입 의존도(2021년)



주: 쌀 및 그 상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FAO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검색일: 2023. 8. 24).

그림 10. 주요 수출국별 쌀 가격 비교



주: 저품질 인디카 기준.  
자료: FAO(검색일: 2023. 8. 24).

- 인도 비(非)바스마티 쌀의 주요 수출국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안보 지수와 기아지수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특히 이 지역 극빈층의 식량안보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표 3. 인도 비(非)바스마티 백미 주요 수입국: 식량안보지수 및 기아지수 순위(2022년 기준)

국가명	식량안보지수 순위 (총 113개국)	기아지수 순위 (총 121개국)
인도	69	107
네팔	74	81
케냐	82	94
모잠비크	94	데이터 없음.
베냉	91	91
토고	98	92
이집트	77	57
코트디부아르	데이터 없음.	74
카메룬	96	80
마다가스카르	109	119
세네갈	86	71

주: 국가는 최근 2년간 인도 비(非)바스마티 쌀 수출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했으며, 베트남은 주요 쌀 생산국으로 제외하였음.  
식량안보지수 및 기아지수 모두 순위가 높을수록 안정적임.  
자료: Global Food Security Index, Global Hunger Index(검색일: 2023. 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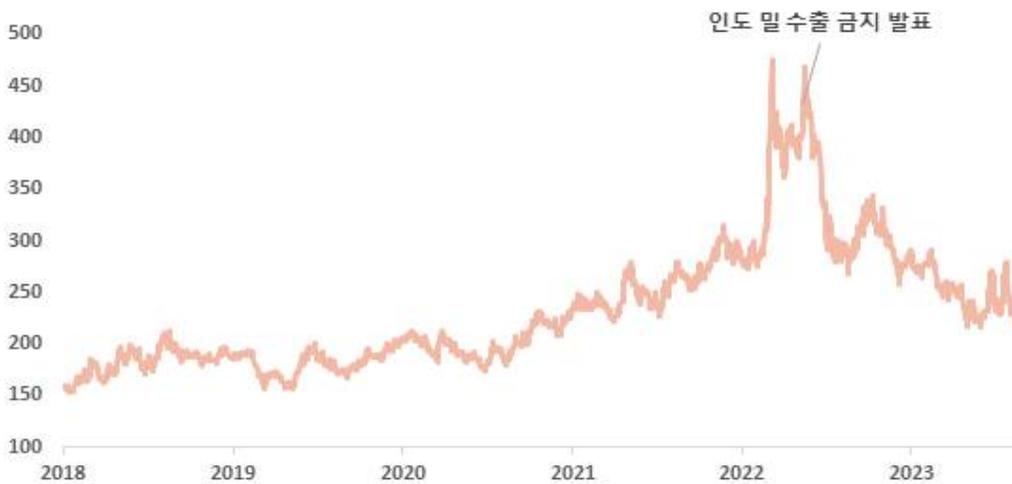
### 3.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인도정부가 비(非)비스마티 백미 수출을 제한한 것은 2022년에 밀 수출을 금지한 것보다 더 큰 대외 충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인도가 2022년 5월에 밀 수출 금지를 발표한 후 국제 밀 가격이 급등했으나 인도가 기존 밀 수출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고,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밀 수출을 허용하면서 밀 가격이 하락하였음.<sup>29)</sup>
- 2022년 5월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의 밀 가격은 톤당 419달러까지 올랐다가 7월 296달러로 내렸으며, FAO 곡물 가격지수는 5월 173.40까지 올랐다가 7월 144.10으로 내려옴.<sup>30)</sup>

그림 11. 세계 밀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주: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자료: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검색일: 2023. 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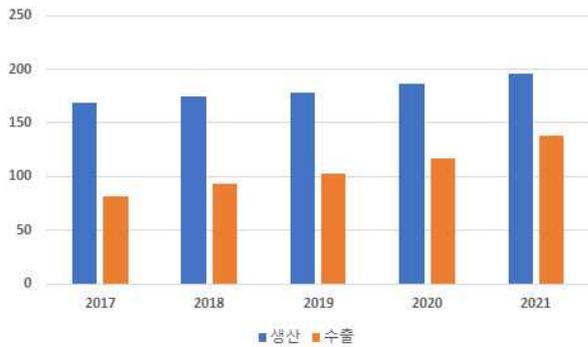
- 2023년 8월 기준 인도의 대세계 쌀 수출은 밀 수출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엘니뇨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인도가 비(非)비스마티 백미 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음.
- 인도는 2017~21년 평균 1억 8,00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그중 59%를 수출했으며, 같은 기간 밀 생산은 1억 300만 톤이었으며 그중 8%를 수출함.

29) India Today(2022. 6. 21), "India to resume exporting wheat, broken rice to 4 countries"(검색일: 2023. 8. 25).

30)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검색일: 2023. 8. 28).

그림 12. 인도의 쌀 생산 및 수출 규모(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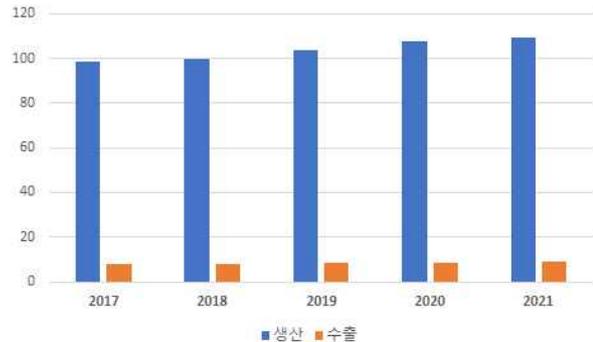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주: 수출은 쌀과 그 상품 기준.  
자료: FAO(검색일: 2023. 8. 24).

그림 13. 인도의 밀 생산 및 수출 규모(최근 5년)

(단위: 백만 톤)



주: 수출은 밀과 그 상품 기준.  
자료: FAO(검색일: 2023. 8. 24).

■ 2024년 총선을 앞둔 모디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물가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수립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농촌지역에는 인도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인도 전체 노동인구의 약 40% 이상이 농업 및 연관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 및 소비 가격의 안정화'는 인도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임.<sup>31)</sup>
  - 2019년 총선의 주요 이슈는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였으며,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해 2022년에 실시된 주요 5개 주 주의회 선거의 가장 큰 이슈도 민생안정이었음.<sup>32)</sup>
  - 미조람, 차티스가르, 마디아 프라데시, 라자스탄의 주회의 선거도 내년 총선 전에 실시될 예정임.<sup>33)</sup>
- 8월 현지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디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지난 1월보다 8%p 낮은 59%로 집계됨.<sup>34)</sup>
  -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 문제와 물가 상승인 것으로 분석됨.

■ 인도의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 새로운 수확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도정부가 필요시 추가적인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인도의 식료품 물가는 단기간 내 안정화되기 어려워 보이며, 8월 인플레이션도 인도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정부는 8월 27일 바스마티 쌀 수출도 부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음.<sup>35)</sup>

31) World Bank 통계,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RUR.TOTL.ZS?locations=IN>(검색일: 2023. 8. 31).

32) 김도연, 윤지현(2019), 「2019 인도 총선 주요 이슈와 전망」KIEP, 김도연 외(2022) 「인도 5개주 주의회 선거 결과와 의의」, KIEP.

33) 2023년 12월 미조람, 그 외는 2024년 1월에 선거를 실시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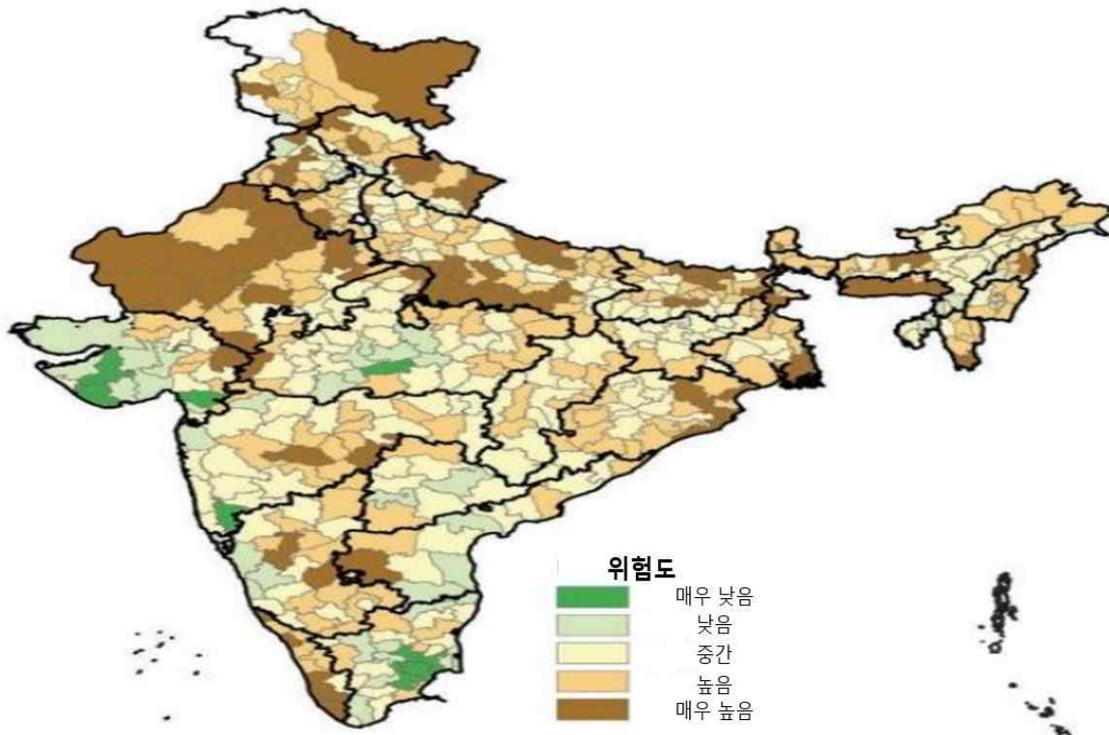
34) India Today(2023. 8. 23), "Mood of the Nation: 59% satisfied with NDA's performance, says survey"(검색일: 2023. 8. 28).

35) 인도 상공부 온라인 보도자료(2023. 8. 27), "Introduction of additional safeguards for export of Basmati rice to prevent exports of Non-Basmati white rice through mis-classification as Basmati rice"(검색일: 2023. 8. 28).

■ 한편 인도는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뿐만 아니라 품종 개선, 농업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임.

- 2022년 UN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남아시아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가뭄과 홍수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남아시아 국가 중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음.<sup>36)</sup>
- 인도 농업연구위원회(ICAR)가 수행한 ‘인도 농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따르면, 총 573개의 농촌 지역 중 54%(109개 지역 ‘매우 위험’, 201개 지역이 ‘위험’)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난화에 따라 수확량이 4.5~9%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sup>37)</sup>

그림 14.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위험도(2020~49)



자료: ICRIER(2023), Climate-Proofing Agriculture, p. 10.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sup>38)</sup>
- 아밋 샤(Shah) 내무부 장관은 “농업용 저장시설 부족에 따라 농산물이 버려지는 인도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 농업 신용협회(PACS: Primary Agricultural Credit Societies)’를 설립해 농민들이 수확물을 적기에 판매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함.

36)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https://www.ipcc.ch/report/ar6/wg2/chapter/chapter-10/>(검색일: 2023. 8. 28).

37) 기온이 1도가 올라갈 경우, 밀 생산량이 400만~500만 톤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함. ICRIER(2023), Climate-Proofing Agriculture, p. 10.

38) 인도 내무부 온라인 보도자료(2023. 5. 31), “Union Home Minister and Minister of Cooperation, Shri Amit Shah has thanked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 for approving the constitution of an Inter-Ministerial Committee (IMC) for the World’s Largest Grain Storage Plan in Cooperative Sector”(검색일 2023. 8. 27).

- 인도의 농촌개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저장시설 구축과 같은 분야에 협력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은 인도 농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협력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5/16년 인도 농업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도 농민의 약 86%가 1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보유한 영세농으로 집계됨.<sup>39)</sup>
  - 영세농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종자, 농약 및 농기구, 관개시설 구축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농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 인도정부는 농촌 및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sup>40)</sup>
  - 인도정부는 2023/24년 예산안의 2.8% 규모인 1조 2,530만 루피를 농업 부문에 할당하고 농민소득 보장제 (PM-KISAN), 작물 보험료 지원(PM-FBY), 소규모 관개시설 확충(PM-KSY)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다수확 작물 개발 △관개시설 인프라 확충 △농업인력 훈련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인도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한국은 농업 분야에 ODA 경험이 풍부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국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으로, 인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적기임. **KIEP**

39) Agriculture Census 2015/16, <https://agcensus.dacnet.nic.in/>(검색일: 2023. 8. 31).

40) PRS India, "Demand for Grants 2023-24 Analysis :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검색일: 2023. 9. 4).